

# 여성농업인의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 지역농업리더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최정신<sup>a</sup> · 최윤지<sup>b\*\*</sup> · 정진이<sup>c</sup> · 김현영<sup>d</sup>

<sup>a</sup>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농업연구사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sup>b</sup>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농업연구관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sup>c</sup>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전문연구원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sup>d</sup>이정심리연구소 상담전문위원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137길 3)

## The Effect of Female Farmers' Sense of Community on Resident Participation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n Regional Agriculture Leader's Capacity -

Jung Shin Choi<sup>a</sup> · Yoon Ji Choi<sup>b</sup> · Jin Yi Jeong<sup>c</sup> · Hyun Young Kim<sup>d</sup>

<sup>a</sup>Senior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sup>b</sup>Senior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sup>c</sup>Post Doctoral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sup>d</sup>Consulting Advisor, Lee Jung Psychological Laboratory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regional agricultural leader's capacity between the sense of community of female farmers and the resident participation. A survey was conducted on 312 female farmers from October 20 to November 19, 2020.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showed that the higher the sense of community, the higher the awareness of resident participa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sense of community had a positive effect on resident participation as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was higher, and that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se of community and the resident participation. Third, regional agricultural leadership capacity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se of community and the resident participation.

**Key words:** female farmers, sense of community, resident participation, regional agriculture, leader's capacity

### 1. 서론

정치 권한, 경제 참여 및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의 분야별 성별 격차를 지표화해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는 세계경제 포럼의 세계 성격차지수 보고서(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는 153개국 중 108위로 나타

났다. 이러한 지표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여성의 정치적 권한과 지위가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삶의 경험을 정치에 반영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 불평등의 문제를 정치 현안으로 가져갈 수 있으므로, 지위 향상과 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안태운, 2012).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차별적 환경을 인지하여 권리를 회복하

주요어: 여성농업인, 공동체의식, 주민참여, 지역농업, 리더역량

\*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151170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최윤지) 전화: 063-238-2645, e-mail: veritas96@korea.kr

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고 불평등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한 이후 사회적·정치적 지위 확보에 참여하게 된다(전정모, 2013). 즉,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집단적 이해가 실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을 계기로 지방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농업과 지방농정이 시행되었으며 기존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 농정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업정책으로 전환되었다(소순영, & 유찬주, 199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농정으로는 복잡한 농업·농촌 문제의 해결이 어렵고,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농정의 기본적인 변화는 협치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정기수, 채선옥, & 최수지, 2018).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농업정책, 경직된 관료조직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농업인이 직접 농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정참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2011년에는 민관협력의 거버넌스와 주민자치를 강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및 농업 의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민간의 자발적 농정 참여 기구인 농업회의소가 설립되었으며, 최근에는 농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있는 농업회의소법 제정안이 2021년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방정부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정책의 큰 변화 속에서 생산자 조직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결정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역할 및 활동 범위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권고하는 각종 농업·농촌 정책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2009년 26.1%에서 2020년 42.8%로 크게 확대함으로써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및 실적화는 부족한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농협의 여성조합원 및 여성 임원의 비율은 2020년 기준 각각 33.0%, 8.6%로 조합원 대비 임원의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20). 제21대 전국 군단위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현황을 살펴보면, 40개 선거구에서 여성 당선자는 전무하며, 선출직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군단위 전체 의원 642명 중 135명으로 21.0%에 해당하였다(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홈페이지, 2020.10.21.). 마을 이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정신, & 최윤지, 2020).

여성농업인의 농정참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주민참여 과정에서의 지지요인과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여성의 주민참여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이를 지지하는 인식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중 중요한 요소가 공동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동체의식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참여와 지지는 정부의 농정 수립 및 실행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여성농업인의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자치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공동체의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 의식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Derrett, 2003). 이에 다수의 학자들이 공동체 의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농촌지역은 인구의 과소화, 고령화가 진행되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유대감 등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공동체의식의 회복이 주요한 화두로 대두되었다.

공동체의식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된 많은 분야의 연구들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공동체의식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Mcmillan, & Chavis(1986)는 공동체의식이란 구성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타인이나 단체의 일부라는 느낌과 역사, 경험 등 구성원의 욕구를 함께 논의하고 충족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공동체의식 척도를 개발하고 이론으로서의 실증적 강점을 입증하였다(Chavis, Hogge, McMillan, & Wandersman, 1986; Mcmillan, 1996).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 Mcmillan, & Chavis(1986)의 이론을 토대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의 공동체의식 수준을 비교한 김경준, & 김성수(1998)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공동체의식을 지역사회에 소속해 있음으로써 받게 되는 충만한 느낌,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연대 의식,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및

지역사회와 구성원 상호 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식, 그리고 지역사회 및 구성원들의 친밀한 느낌으로 정의하고, 대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즉, 농촌지역의 공동체의식이 가장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의식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성희자, & 전보경(2006)은 공동체의식을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하고,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사회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라고 하였다. 신영선(2012)은 동일한 지역성을 기반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공유하는 집단 속에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집단의식으로 공동체의식을 정의하고, 사회적 교류 요인과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 구성된 농촌 공동체의식 측정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주민 교제 만족도, 주민 간 화합 정도, 결혼여부를 공동체의식의 영향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성희자, & 이강형(2013)은 살고 있는 마을의 인지도, 주민과의 친밀한 관계, 마을의 참여도를 공동체의식으로 정의하였으며, 협동조합, 생산자조직, 농업관련 단체 등 농업과 직접 관련된 직능단체 참여와 자원봉사나 시민단체와 같은 사회단체 참여가 공동체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권정미, & 박태영(2014)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또는 그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식으로 공동체의식을 정의하였으며, 연령, 거주기간, 자가 소유, 자원봉사경험, 사회단체활동 참여, 지역사회문제 인식, 거주지역 만족도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사회 공동체의식 유형별 주민참여 특성을 분석한 임광명(2017)은 공동체의식을 지역사회 안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 집합의식이며 공동체를 발전시키려는 의식으로 보고, 농촌지역 주민이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으면 이웃 간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기화되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참여가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공동체의식의 지역사회참여 영향 요인을 살펴본 박덕병, 임광명, & 안재문(2018)은 지역사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집합의식이며 공동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식으로 정의하였으며, 당인숙, & 류진아(2017)는 농촌 마을만들기 주민참여가 현대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 2.2. 주민참여

민주적인 정부의 정책결정 활동이 적절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

해서 주민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임정빈, 2005), 다양한 사람들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주목받으면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박덕병, 임광명, & 안재문, 2018).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부터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지방정부 또는 정책·기획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실무적인 사례연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된다(박종관, 2011).

주민참여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Cunningham(1972)은 지역사회의 일반 주민들이 그 사회의 일반적인 문제에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Huntington, & Nelson(1976)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된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행정 관료를 선출하거나 행정 관료가 실행하는 행동에 주민 개인이나 집단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활동(Harrigan, 1993), 지방정부의 행정과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절차(Webler, & Tuler, 2001) 등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승중(1997)이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역주민의 행위라고 정의하였으며, 김영기(2002)는 일반 주민들이 지방자치정부의 활동이나 결정, 그리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으로, 조석주, & 강인성(2006)은 정부와 주민사회가 대화를 개방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프로젝트·프로그램의 설계·집행·평가시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송광태(2003)는 지역사회의 일반 주민이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자들에게 정책이나 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박종관(2011)은 주민참여를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일반시민들의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동을 지칭하는 것을 의미하며, 참여 방법에 따라 일부 소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참여, 오프라인에서 일반주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참여, 온라인을 통한 참여,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개방적 참여로 구분하였다. 최문형, & 정문기(2015)는 주민들이 자치의 주체로서 지역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주민참여를 설명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정보 제공형 참여와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를 탐색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주민주도적 참여, 정부와 주민의 양방향적 관계인 협력적 참여의 3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양덕순, & 강영순(2008)은 주

민참여를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주민참여는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회구성원들 간의 단결과 협력이 촉진된다고 주장하였다. 한수정, 정예은, & 정문기(2019)는 주민참여를 주민에게 전달·공유되고 주민이 자치의 주체로써 의견을 제안하고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정보제공형 참여와 주민주도적 참여로 구분하였다.

### 2.3. 지역농업리더역량

농업은 산업적 특성에 비추어 지역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농정 기구를 구성하고 지역농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체가 성숙되면서 지역의 역사·문화·전통 등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농업 전략이 모색되는 추세이다(김정호, & 이병훈, 2005). 농정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정책 대상으로서 마을공동체나 작목반과 같은 최소 사회경제집단의 중요성이 증대하며 이를 이끌고 있는 리더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즉, 농업생산과의 연계성은 물론 다양한 지역 활동과 제휴를 통해 발전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인적자원의 확보와 조직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유찬주, 고정식, & 이용기, 2012). 또한, 정부의 농업·농촌 관련 정책사업추진에서도 지역 주민의 신청 내용을 우선 반영하는 상향식 개발 방식을 도입하면서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리더 역할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에는 전통적 의미의 권위와 사회경제적 신분에 입각한 리더보다는 새로운 농법이나 기술의 도입, 개발하여 실험과 열의를 가지고 실천하면서 활동하는 리더의 역할이 마을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허장, & 정기환, 2003).

역량은 한 사람이 보유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결과를 남기기 위한 행동을 지칭하며, 직무수행능력, 직업능력, 역량, 기술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Boyatzis(1982)는 역량을 직무에 있어서 효율적이거나 우수한 수행을 나타내는 개인의 잠재적 특성, Spencer, & Spencer(1993)는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을 보이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역량은 크게 개인적 역량과 지역사회 역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개인적 역량은 특정한 상황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남들과는 다른 특성으로 정의하고, 지역사회역량은 주민들이 주도적으

로 참여하여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힘으로 정의하였다(김두순, 2016).

농촌지역 마을리더와 관련하여 Moore, & Rudd(2005)는 농촌지역 리더에게 요구되는 주요 리더십 기술영역으로 인간관계, 개념적 기술, 전문적 기술, 감성지능 기술, 의사소통, 산업지식 기술로 정의하였다. 김정호, & 이병훈(2005)은 농촌마을 지도자 리더 역량이란 농촌지역 사회에서 농촌마을에 관련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과 지식, 능력 및 행동의 특성으로 도농교류와 농촌마을의 성과에 연계시키는 일련의 행동 능력이라고 개념화하였다. 농촌마을 지도자 리더 역량은 마을의 발전과 주민의 통합을 위해 소득과 관련된 전문적 기술과 주민관계에서 인간적 기술 등을 통해 주어진 위치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와주며, 조직의 미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안동섭, 이병준, & 정안섭, 2020).

박은식, 이채식, 박덕병, & 고정숙(2006)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홍보가, 마케터, 계획/설계자, 프로그램 개발자 등의 역할, 관리전문가로서 평가자, 내외부 연계자, 사업인프라 관리자, 프로그램 관리자 등의 역할, 조직구성원 관리로 상담자, 조직원 관리자, 여론지도자, 의견조정자 등의 역할, 변화 촉진자로서 후계자 양성자, 주민교육관리자, 연구자 등의 24개 리더십 역할을 설정하고, 특히 농촌 여성 리더에게는 갈등관리, 성과측정, 벤치마킹, 브랜드 개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농촌사회 변화를 고려한 농촌 리더 역할을 변화촉진자, 의사소통자, 변화를 유도하고 혁신하는 혁신자, 마을의 주요한 일에 대하여 협상력을 갖는 협상가,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창출자, 마을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조직가, 마을의 여러 가지 기능을 관리, 조정하는 관리자, 마을 사업 수행 과정을 점검하는 점검자 등 8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였고, 남성리더들이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식, 이채식, 고정숙, & 황대용, 2005). 즉,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를 위해 요구되는 리더 역량은 농촌리더의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집단에 맞는 리더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박은식, 이채식, 고정숙, 조영숙, 황대용, & 박덕병, 2006). 오승영, 박천오, & 진종순(2010)은 농촌마을 리더들이 인간관계역량, 감성인 지 역량, 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농업지식·기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며, 농촌마을 사업운영 과정에 있어 지도자의 리더역량은 불가결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였다.

### 2.4.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주민참여는 주민 스스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정부와 소통하며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도모할 수 있으나, 제도 와 법령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에 기여하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주민참여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최문형, & 정문기, 2015). 최근 공동체의식이 지역 내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지면서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표 1>).

양덕순, & 강영순(2008)은 공동체의식 성향이 강할수록 주민 참여 의향 및 관심은 큰 반면에 실제 주민참여와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도와 의향이 실제 참여와는 관계가 없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문형, & 정문기(2015)는 주민참여를 개별적 주민참여와 집단적 주민참여로 유형화하고 공동체의식의 세부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동체의식이 개별적 주민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적 주민참여에서는 상호영향의식과 감정적 연계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주민참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안정적 주거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재호(2013)는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공동체의식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Chavis, &

Wanndersman(1990), Aref(2011) 등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이 강한 주민일수록 지역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에 따른 주민참여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도시 거주 주민의 경우 상호영향의식과 공유된 감정적 연계(한수정, 정예은, & 정문기, 2019), 주민의식과 충족감(윤형자, & 정희영, 2020)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거주 주민의 경우에는 귀속성과 교류성(배은석, & 박해공, 2016), 소속감이 영향을 미쳤으며 거주기간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혔다(박덕병, 임광명, & 안재문, 2018). 특히, 배은석, & 박해공(2016)은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지만,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공동체의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최정신, 최윤지, 윤순덕, 김수림, & 한송희(2017)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활동 참여에 긍정적이며, 대도시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민소영, & 이영순(2014)의 결과에서도 공동체의식이 높은 여성일수록 지역사회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및 주민자치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적 자원인 여성농업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농정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 사이에서 지역농업리더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농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 1>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학자	연구대상	분석모형		연구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양덕순, 강영순 (2008)	제주도 거주 주민	공동체의식	주민참여	공동체의식 성향이 강할수록 주민참여 의향 및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주민참여와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민소영, 이영순 (2014)	수원시 거주 여성	공동체의식	지역사회 참여	공동체의식이 높은 여성일수록 지역사회참여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문형, 정문기 (2015)	서울시 거주 주민	공동체의식	주민참여	공동체의식이 개별적 주민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적 주민참여에서는 상호영향의식과 감정적 연계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배은석, 박해공 (2016)	도농복합 지역 주민	일반적특성, 공동체의식	지역사회 참여	농촌 거주 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동체의식 구성요소 중 귀속성과 교류성이 영향을 미침
최정신, 최윤지, 윤순덕, 김수림, 한송희(2017)	농촌 거주 60세 미만 여성	일반적특성, 공동체의식	지역사회 참여	연령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농촌 여성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할 가능성 높고, 공동체의식은 농촌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박덕병, 임광명, 안재문(2018)	평택시 농촌 주민	(독립) 공동체의식 (조절) 거주기간	지역사회참여	공동체의식의 연대감, 소속감, 정서적 친밀감 중 소속감이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거주기간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수정, 정예은, 정문기(2019)	서울시 아파트 거주 주민	공동체의식	주민참여	공동체의식 구성요소 중 상호영향의식과 공유된 감정적 연계가 주민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윤형자, 정희영 (2020)	서울시 거주 주민	공동체의식	주민참여	공동체의식 구성요소 중 주민의식과 충족감이 높을수록 주민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 연구방법

####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농업회의소가 설치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는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1개월간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Web 설문지 개발시스템을 적용하여 App(앱) 기반 PC와 모바일 버전으로 개발하였으며, URL 접속을 통해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문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성실한 설문 응답을 위해 문자를 통한 독려와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최종 312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3.2. 측정도구

##### 3.2.1. 주민참여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자치의 주체로써 지역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정보제공형 참여와 주민주도적 참여, 협력적 참여에 해당하는 다양한 행정행위에 참여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주민참여의 측정문항은 임승빈(2005), 조석주, & 강인성(2006), 박종관(2011), 정명은(2012)의 견해를 바탕으로 총 12문항의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939이었다.

##### 3.2.2. 공동체의식

농촌 주민의 공동체의식은 지역사회에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서적 유대와 사회적 결속을 이루고자 하는 의식으로 정의하고 최문형, & 정문기(2015)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총 6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926이었다.

##### 3.2.3. 지역농업리더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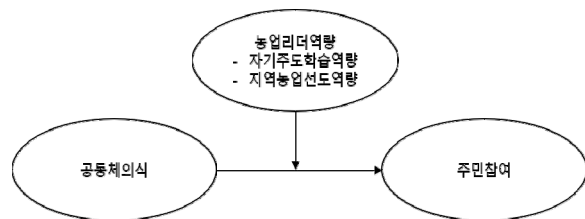
지역농업리더역량은 지역농업의 리더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역량으로서 정의하고 정용경, & 황정업(2019)이 개발한 지

역농업 리더 역량 척도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총 13개 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916이었다.

#### 3.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민참여 의식, 공동체의식, 지역농업리더역량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둘째, 지역농업리더역량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잠재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하였고, 직교회전 방식의 하나인 베리맥스 회전법을 적용하였으며, 추출된 요인이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와의 영향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농업리더역량이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 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한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연령, 학력, 농업종사기간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 및 지역농업리더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통제변수로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이때 변수투입방법은 단계적 방식을 적용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독립변인의 상호작용항을 구성함에 있어 단순히 변수간의 곱한 값을 사용할 경우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중심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이유재, 1994), 분석의 초점이 조절효과에 있을 경우 평균중심화되는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이형권역, 2015) 평균중심화를 실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최종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4. 연구결과

####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령은 50~60세 미만이 44.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60세 이상 31.4%, 50세 미만 23.7% 순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4.6세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는 기혼이 96.5%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결혼을 한 상태이며, 거주지역은 전라도 36.9%, 경상도 36.4%, 충청도 26.7%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43.3%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 39.2%, 중졸 이하 17.6% 순이었으며, 이는 App(앱) 기반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라는 점 때문에 농업인 평균 학력보다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농업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농업종사기간은 30년 이상이 30.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년 미만이 28.2%, 10~20년 미만 21.8%, 20~30년 미만 19.9%이었으며, 평균 농업종사기간은 19.3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경영형태는 개별농가가 86.2%로 가장 많고, 농업인으로서 종사상 지위는 공동경영주 39.7%, 경영주 36.9%로 경영주 비율이 약 8할을 차지하였고, 반면에 가족종사자의 경우도 23.4%이었다. 주 영농분야는 과수와 논벼가 각각 26.3%, 24.4%로 약 절반을 차지하였고, 시설과 노지채소가 각각 16.3%, 13.1%로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순소득은 1,000~3,000만 원 미만과 3,000~

5,000만 원 미만이 각각 31.1%, 2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7,000만 원 이상은 15.1%이었다.

#### 4.2. 지역농업리더역량 요인분석

지역농업리더역량의 차원을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요인분석이 적절한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Bartlett의 구형검사와 Kaiser-Meyer-Olkin(이하, KMO)의 표본적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Bartlett의 구형검사 결과, 상관관계 행렬 상의 모든 상관관계 값들이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chi^2=2375.585$ ,  $p<.001$ ). 또한, KMO 통계량은 0.05이상이어야 하고 보통 0.07 이상이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0.906으로 높게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13개의 지역농업리더역량 속성으로 2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졌으며, 모든 요인의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들만 추출되었다. 전체 분산의 62.072%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의 부하량은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요인1은 7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전체 변량의 50.265%를 설명하고 있으며, 2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많은 변량(50.265)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역농업리더역량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지역농업 역량과 관련되어 있어 ‘지역농업선도역량’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6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11.807%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12)

구분	N	%	구분	N	%		
연령	50세 미만	74	23.7	농업인지위	경영주	115	36.9
	50세~60세 미만	140	44.9		공동경영주	124	39.7
	60세 이상	98	31.4		가족종사자	73	23.4
혼인상태	기혼	301	96.5	경영형태	개인(개별농가)	269	86.2
	미혼 또는 비혼	11	3.5		기타(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	43	13.8
거주지역	경상도	114	36.4	농업종사기간	10년 미만	88	28.2
	전라도	115	36.9		10년~20년 미만	68	21.8
	충청도	83	26.7		20년~30년 미만	62	19.9
중학교 이하	55	17.6	30년 이상		94	30.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135	43.3	주 영농분야	논벼	76	24.4
	대학교 졸업 이상	122	39.2		과수	82	26.3
	1,000만원 미만	57	18.3		노지채소	41	13.1
1,000~3,000만원 미만	97	31.1	시설채소		51	16.3	
3,000~5,000만원 미만	77	24.7	기타(화훼, 특용, 축산 등)		62	19.8	
5,000~7,000만원 미만	34	10.9					
7,000만원 이상	47	15.1					

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자기 계발 및 학습과 관련되어 있어 ‘자기주도학습역량’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지역농업리더역량 속성의 Cronbach’s  $\alpha$  값은 0.916이었다. 요인1 지역농업선도역량의 Cronbach’s  $\alpha$  값은 0.886, 요인2 자기주도학습역량의 Cronbach’s  $\alpha$  값은 0.883으로 각 요인의 신뢰도값으로 볼 때 높은 내적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3. 공동체의식, 주민참여, 지역농업리더역량의 기술통계

조사대상자의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 지역농업리더역량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으며,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주요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일변량 왜도의 절대값이 3.0보다 크거나 첨도의 절대값이 10보다 클 경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Kline, 2005),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의 왜도의 절대값이 3을 초과하거나 첨도 절대값이 10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공동체의식은 30점 만점에 평균 24.62점(SD=4.242)으로 나타났다. 지역농업리더역량의 전체 평균은 65점 만점에 46.65점(SD=9.312)이며, 하위요인인 자기주도학습역량은 30점 만점에 24.62점(SD=4.455), 지역농업선도역량은 35점 만점에 25.04점(SD=5.833)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참여에 대한 평균은 60점 만점에 44.88점(SD=11.243)으로 나타났다.

<표 3> 지역농업리더역량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항목	공통성	요인	
			1	2
지역 농업 선도 역량 (7)	나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농업기술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다	.742	.847	.157
	나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농업, 농촌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742	.839	.196
	나는 우리 지역농업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650	.771	.235
	나는 농업과 관련된 이슈를 파악하고 있다	.676	.752	.331
	나는 우리 지역의 농업, 농촌 환경을 파악하고 있다	.618	.731	.291
	나는 신기술, 신품종 등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인다	.474	.566	.392
	나는 농사를 짓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361	.515	.309
자기 주도 학습 역량 (6)	나는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임한다	.761	.275	.828
	나는 내가 결정한 일에 반드시 책임을 진다	.646	.103	.811
	나는 무언가를 실행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한다	.644	.342	.728
	나는 자기계발을 위해 계속해서 공부한다	.668	.340	.727
	나는 결정에 대한 결단력이 빠르다	.563	.256	.705
	나는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	.526	.282	.668
	고유값		6.534	1.535
	분산비율		50.265	11.807
	누적분산비		50.265	62.072
	KMO의 표본적합도(MSA) 검정		.90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Approx $\chi^2$ 자유도(df)	2375.585*** 78	

\*\*\*p<.001

<표 4> 여성농업인의 공동체의식, 주민참여, 지역농업리더역량 기술통계분석 (N=312)

구분	하위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소값	최대값
	공동체의식	24.62	4.424	-.438	-.692	12	30
	자기주도학습역량	24.62	4.455	-.609	-.093	7	30
지역농업리더역량	지역농업선도역량	25.04	5.833	-.046	-.612	8	35
	전체	49.65	9.312	-.157	-.604	18	65
	주민참여	44.88	11.243	-.395	-.454	12	60



#### 4.4. 지역농업리더역량의 조절효과

공동체의식(독립변수)과 주민참여의식(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지역농업리더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주도학습역량과 지역농업선도역량을 조절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한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 3단계에서는 조절변수, 4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조합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자기주도학습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공동체의식을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은 30.1%이고, 조절변수인 자기주도학습역량을 투입함으로써 설명력이 33.1%로 증가하였다. 공동체의식과 자기주도학습역량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34.6%로 순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F 변화량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8.068, p<.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나이, 학력, 농업종사기간의 주민참여의식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모형1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1.939, p>.05).

다음으로 나이, 학력, 농업종사기간을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2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34.422, p<.001). 즉, 공동체의식( $\beta = .545, p<.001$ )이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공동체의식이 높아질수록 주민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3은 조절변수인 지역농업선도역량이 종속변수인 주민참여와 독립변수인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단계이다. 분석결과 조절변수가 투입된

모형3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1.749, p<.001), 자기주도학습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3에서도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기주도학습역량도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공동체의식이 높고 자기주도학습역량이 높을수록 주민참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모형4에서는 자기주도학습역량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동체의식과 자기주도학습역량의 상호작용항을 구성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모형4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8.413, p<.001), 이는 모형3에 비해 1.5%(p<.01) 증가하여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의 관계에서 지역농업리더역량의 하위요인인 자기주도학습역량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상호작용항인 공동체의식×자기주도학습역량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278, p<.01$ ). 즉, 공동체의식은 자기주도학습역량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주도학습역량은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농업선도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공동체의식을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은 30.1%이고, 조절변수인 지역농업선도역량을 투입함으로써 설명력이 40.2%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동체의식과 자기주도학습역량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40.0%로 감소하였으며, F 변화량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300, p>.05). 반면, 지역농업선도역량은 주민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03, p<.001$ ), 지역농업선도역량은 단순히 독립변

<표 5>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역량의 조절효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eta$	t	$\beta$	t	$\beta$	t	$\beta$	t
통제변수								
연령	.058	.844	.014	.245	.015	.261	.027	.484
학력	.060	.906	-.021	-.368	-.037	-.665	-.027	-.503
농업종사기간	.119	1.707	.077	1.308	.089	1.541	.089	1.571
독립변수								
공동체의식			.545	11.377***	.388	6.238***	-.318	-1.242
조절변수								
자기주도 학습역량					.240	3.853***	-.452	-1.800
독립×조절							1.278	2.840**
R <sup>2</sup>		.019		.310		.342		.359
수정된 R <sup>2</sup>		.009		.301		.331		.346
R <sup>2</sup> 변화량		.019		.291		.032		.017
F 변화량		1.939		129.444***		14.845***		8.068**
F		1.939		34.422***		31.749***		28.413***

\* p<.05, \*\* p<.01, \*\*\* p<.001

〈표 6〉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 관계에서 지역농업선도역량의 조절효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eta$	t	$\beta$	t	$\beta$	t	$\beta$	t
통제변수	나이	.058	.844	.014	.245	.075	1.384	.077	1.418
	학력	.060	.906	-.021	-.368	-.015	-.292	-.014	-.266
	농업종사기간	.119	1.707	.077	1.308	-.005	-.090	-.002	-.041
독립변수	공동체의식			.545	11.377***	.310	5.649***	.206	1.049
조절변수	지역농업 선도역량					.403	7.275***	.254	.910
독립×조절								.227	.548
R <sup>2</sup>			.019		.310		.411		.412
수정된 R <sup>2</sup>			.009		.301		.402		.400
R <sup>2</sup> 변화량			.019		.291		.102		.001
F 변화량			1.939		129.444***		52.919***		.300
F			1.939		34.422***		42.779***		35.617***

\*p&lt;.05, \*\*p&lt;.01, \*\*\*p&lt;.001

수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조절변수로 가정된 지역농업선도역량은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의 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농업인의 농정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 사이에서 지역농업리더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농정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10월 20일부터 1개월간 농업회의소가 설치된 지역에서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농업리더역량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농업선도역량과 자기주도학습역량의 2요인으로 설명되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김두순, 2016)에서 제시한 개인적 역량, 지역사회역량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나이, 학력, 농업종사기간을 통제한 상태에서 공동체의식은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배은석, & 박해궁, 2016; 최정신, 최윤지, 윤순덕, 김수림, & 한송희, 2017).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주민참여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Chavis, & Wandersman, 1990; Zhao et al., 2012; 서재호, 2013; 임광명, 2017). 이는 여성농업인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으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 관계에서 지역농업리더역량을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주도학습역량의 경우, 공동체의식은 자기주도학습역량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기주도학습역량은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농업선도역량은 주민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의 관계에서 조절작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자기주도학습역량과 지역농업선도역량 모두 주민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량이 높은 농촌 주민 집단이 지역사회 애착심, 참여도, 관여도, 만족도가 높다고 밝힌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김두순, & 김성록, 2017; 김두순, 김성록, & 박덕병, 2017). 또한 자기주도학습역량만이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소속감, 지역에 대한 참여도, 기여도 및 사회나 지역의 이슈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지역에서의 삶의 만족도와 지역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 지역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고진영, 김지용, 양민호, 김명일, & 김기성, 2018).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농업인의 지역농정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농촌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공동체의식 향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공동체의식이 여성농업인의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역 내 주민들과의 유대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민소영, & 이영순, 2014). 이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공동체의식 강화 교육 및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상담, 제도적·행정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여성농업인의 공동체의식을 학습·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여성농업인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정치가 있어 여성 이슈를 쟁점화하고 여성정책을 부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의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송태수, & 양민석, 2014). 이를 위해서는 농촌마을의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키고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 개발과 관련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권지윤, 김은수, & 배성의, 2015).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해 주기 위한 교육 및 농정활동을 지지해줄 수 있는 폭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 지지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농촌 사회의 매우 중요한 인적구성원인 여성농업인의 역량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지역농정에서의 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농업인의 지역농정 참여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농업회의소 설치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자료수집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표본 추출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농촌 주민의 역량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업 인력 양성의 관점에서 농업 주민의 역량 측정 및 평가를 위한 향후 지속적인 연구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 고진영, 김지용, 양민호, 김명일, & 김기성. (2018). 농촌 주민의 역량이 농촌개발의 참여 확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농공학회논문집*, 60(1), 37-45. <https://doi.org/10.5389/KSAE.2018.60.1.037>

2. 권정미, & 박태영. (2014). 도농지역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상북도 의성군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1, 127-154. <http://dx.doi.org/10.15300/jcw.2014.51.4.127>

3. 권지윤, 김은수, & 배성의. (2015). 농촌마을 유형별 주민역량교육에 관한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2(1), 1-14. <http://dx.doi.org/10.12653/jecd.2015.22.1.0001>

4. 김경준, & 김성수. (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23(2), 211-232.

5. 김두순. (2016). 농촌 마을 역량의 추적: 역량단계별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23(4), 431-439. <http://dx.doi.org/10.12653/jecd.2016.23.4.0431>

6. 김두순, & 김성록. (2017). 농촌 지역사회 주민역량 특성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6(3), 465-477. <http://dx.doi.org/10.25202/JAKG.6.3.12>

7. 김두순, 김성록, & 박덕병. (2017). 농촌 지역사회 주민역량이 지역사회 만족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24(4), 279-293. <http://doi.org/10.12653/jecd.2017.24.4.0279>

8. 김영기. (2002). 주민유형과 주민참여 상관성. *사회과학연구*, 20(1), 145-167.

9. 김정호, & 이병훈. (2005). 지역농업의 역량 분석 : 농업총조사 통계의 시·군별 자료를 이용하여. *농촌경제*, 28(3), 1-16.

10. 농림축산식품부. (2020). 제5차('21~'25)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11. 당인숙, & 류진아. (2017). 농촌 마을만들기 참여주민의 공동체의식 영향 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4(4), 265-278. <http://doi.org/10.12653/jecd.2017.24.4.0265>

12. 민소영, & 이영순. (2014). 지역사회 환경이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비판사회정책*, 43, 207-235.

13. 박덕병, 임광명, & 안재문. (2018). 농촌지역주민 공동체 의식의 지역사회참여 영향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5(3), 135-148. <http://doi.org/10.12653/jecd.2018.25.3.0135>

14. 박은식, 이채식, 고정숙, 조영숙, 황대용, & 박덕병. (2006). 농촌지역사회 리더의 역할지위별 리더십역량 중요도 성취도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1), 3-10.

15. 박은식, 이채식, 고정숙, & 황대용. (2005). 농촌리더의 특성 및 리더십역할수행 분석.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2(1), 1-15.

16. 박은식, 이채식, 박덕병, & 고정숙. (2006). 지역사회리더 리더십역량의 중요·성취도 분석. *농촌개발*, 12(1), 59-66.

17. 박종관. (2011).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 *공공행정연구*, 12(2), 1-18.

18. 배은석, & 박해규. (2016). 도농복합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 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 도시와 농촌 지역주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8, 173-199. <http://dx.doi.org/10.15300/jcw.2016.58.3.173>
19. 서재호 (2013). 주민자치 활동 참여와 공동체의식: 부산광역시 4개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437-459.
20. 성희자, & 이강형. (2013). 농촌지역 주민의 사회참여와 공동체의식이 배타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4), 315-332.
21. 성희자, & 전보경. (2006). 농촌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7, 149-170.
22. 소순열, & 유찬주. (1996). 지역농업의 활성화 조건. *전북대 논문집*, 24, 1-14.
23. 송광태. (2003).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주민참여. *한국공공관리학보*, 17(2), 97-118.
24. 송태수, & 양민석. (2014). 여성정치참여와 여성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235-257.
25. 신영선. (2012). 농촌마을 주민 공동체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6. 안동섭, 이병준, & 정안성(2020). 농촌마을지도자의 리더역량과 주민 간 갈등관리 및 농촌마을 사업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3), 356-369. <https://doi.org/10.5392/JKCA.2020.20.03.356>
27. 안태윤. (2012). 제19대 총선과 경기도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가족여성정책 동향 분석*, 67, 1-17.
28. 양덕순, & 강영순. (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71-89.
29. 오승영, 박천오, & 진종순. (2010). 농촌관광정책사업 마을리더의 핵심역량에 관한 실증연구: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9(1), 191-217.
30. 유찬주, 고경식, & 이용기. (201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대응과제. *농업생명과학연구*, 43(1), 19-27.
31. 윤희자, & 정희영. (2020).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7(4), 71-84.
32. 이승중. (1997). 주민참여제도의 확충 방안. *고시계*, 42(12), 138-150.
33. 이유재. (1994).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주 효과의 검증에 대한 연구. *경영학연구*, 23(4), 183-210.
34. 임광명. (2017). 농촌지역사회 공동체의식 유형별 지역사회회활동 참여 특성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4(4), 237-248. <http://doi.org/10.12653/jecd.2017.24.4.0237>
35. 임승빈. (2005). *지방자치론*. 파주: 법문사.
36. 임정민. (2005). 지역갈등, 주민참여 그리고 거버넌스. *한국지역정보학회지*, 8(11), 125-151.
37.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2020.10.21). [nca.or.kr](http://nca.or.kr)
38. 전정모. (2013).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연구: 정당공천제 중심으로. *선거연구*, 4, 319-354.
39. 정기수, 채선옥, & 최수지. (2018).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40. 정명은. (2012).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열린 조직으로서의 지방정부. *한국행정학보*, 46(2), 85-114.
41. 정용경, & 황정임. (2019). *청년농업인의 정주환경과 농업경영 특성 분석 및 지역농업 리더 육성 방안 연구보고서*. 완주: 농촌진흥청.
42. 조석주, & 강인성. (2006).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수준 진단과 발전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3. 최문형, & 정문기. (2015). 공동체 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9(2), 273-306. <http://dx.doi.org/10.18333/KPAR.49.2.273>
44. 최정신, & 최윤지. (2020). *여성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개발 및 지역 역할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 완주: 농촌진흥청.
45. 최정신, 최윤지, 윤순덕, 김수림, & 한송희. (2017). 농촌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영향 요인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8(4), 599-609. <http://doi.org/10.7856/kDOIjcls.2017.28.4.599>
46. 한수정, 정예은, & 정문기. (2019). 공동체의식이 온라인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35(2), 3-18. <https://doi.org/10.22669/krsa.2019.35.2.003>
47. 허장, & 정기환. (2003). 농촌마을의 발전과 새로운 리더십. *농촌사회*, 13(1), 51-83.
48. Hayes, A. F. (2015).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 분석 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이형권 역). 파주: 신영사. pp. 267-279.
49. Aref, F. (2011). Sense of community and participation for tourism development. *Life Science Journal*, 8(1), 20-25.
50. Boyatzis, R. E. (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51. Chavis, D. M. M., Hogge, J. H., McMillan, D. W., & Wandersman, A. (1986). Sense of community through

Brunswick's lens: A first look.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24-40. [https://doi.org/10.1002/1520-6629\(198601\)14:1<24::AID-JCOP2290140104>3.0.CO;2-P](https://doi.org/10.1002/1520-6629(198601)14:1<24::AID-JCOP2290140104>3.0.CO;2-P)

52. Chavis, D. M. M., & Wandersman. A. (1990). Sense of community in the urban environment: A catalyst for particip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1), 55-81. <https://doi.org/10.1007/BF00922689>

53. Cunningham, J. V. (1972).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 589-602. <http://doi.org/10.2307/975227>

54. Derrett, R. (2003). Making sense of how festivals demonstrate a communities sense of place. *Event Management*, 8(1), 49-58. <https://doi.org/10.3727/152599503108751694>

55. Harrigan, J. J. (1993). *Political change in the metropolis* (5th ed.). New York: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56. Huntington, S. P., & Nelson, J. M. (1976). *No easy choi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57.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58. Mcmillan, D. W. (1996).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4), 315-325. [https://doi.org/10.1002/\(SICI\)1520-6629\(199610\)24:4<315::AID-JCOP2>3.0.CO;2-T](https://doi.org/10.1002/(SICI)1520-6629(199610)24:4<315::AID-JCOP2>3.0.CO;2-T)

59. Mcmillan, D. W., & Chavis, D. M.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https://doi.org/10.1002/45206629>

60. Moore, L. L., & Rudd, R. D. (2005). Leadership skills and competencies for extension directors and administrator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45(3), 22-33. <https://doi.org/10.5032/jae.2004.03022>

61. Spencer, L. M., & Spencer, S. M.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62. Webler, T., & Tuler, S. (2001). Public participation in watershed management planning: Views on process from people in the field. *Human Ecology Review*, 8(2), 29-39.

63. World Economic Forum. (2020). Global gender gap report 2020. Retrieved September 24, 2021 from <http://reports.weforum.org/global-gender-gap-report-2020/data-explorer>

Received 03 March 2022; Revised 21 March 2022; Accepted 25 March 2022



Dr. Jung Shin Choi is a Senior Researcher of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focus on rural women and rural families.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166 Nongsaea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sprit9515@korea.kr](mailto:sprit9515@korea.kr)  
phone: 82-63-238-2647



Ms. Yoon Ji Choi is a Senior Researcher of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focus on returning to rural areas, rural women, responding to rural aging, and quality of life.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166, Nongsaea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veritas96@korea.kr](mailto:veritas96@korea.kr)  
phone: 82-63-238-2645



Dr. Jin Yi Jeong is a Post Doctoral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focus on rural women and agricultural product sales.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166, Nongsaea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twojj@korea.kr](mailto:twojj@korea.kr)  
phone: 82-63-238-2655



Dr. Hyun Young Kim is a Counseling Advisor at the Lee Jung Psychological Laboratory. Her research interests focus on Family Psychology.  
Address: (06072) Lee Jung Psychological Laboratory, 3, Yeongdong-daero 137-gil, Gangnam-gu, Seoul, South Korea  
E-mail: [hynyoung@hanmail.net](mailto:hynyoung@hanmail.net)  
phone: 82-10-3024-4115